[별첨6]

사 업 보 고 서

(2022년도)

1-1. 사 업 개 황

2022년 제주감귤농협은 경영목표인「감귤농업인과 조합원이 체감하는 유통대변화 추진」「농협의 디지털 농업·유통·금융 경쟁력 강화」「조합원 실익지원 및 사회 공익 지원 확대」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조합원 소득 증대 및 고객만족 경영 실현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농협 구현!』 비전(VISION 2025)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당초 계획한 당기순이익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다.

사업부분별 세부 경영방침으로는 교육지원사업부분은 '브랜드 감귤생산기술 확대지도를 위한 현장영농교육 강화' '조합원 농협이념 교육 활성화 및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 '고품질감귤 생산 확대 및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도사업 추진' 판매사업부분은 '품종별 공선출하 회원제 회원 육성 확대 추진을 통한 산지 교섭력 강화' '산지유통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산지유통이 주도하는 유통체제 구축' 구매사업부분은 '농업인 니즈 반영 다양한 비종(맞춤형 비료 등) 공급 확대' '농약 맞춤형 처방 강화로 농업인 서비스 기능 확대' '농업인 선호도, 영농여건별 맞춤형 농자재 발굴 및 품목 확대' 신용사업부분은 '핵심비이자이익 확대를 통한 수익기반 확충' '저원가성 예금 중점 추진을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 '상호금융 대표 플랫폼 NH콕뱅크 활성화 지원' '여신 건전성 중점관리 및 건전결산 강화' 경영관리부분은 'ESG경영활동 중시 윤리경영으로 신뢰성 제고' '사무소 지원 역량 확충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지원체계 강화' '농업인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지도·지원 강화' '자기자본 증대 및 합리적인 고정투자 추진, 자금차입 및 재무기준 준수' 등으로 하여 조합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다.

제주감귤농협의 사업부문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지원사업

2022년 교육지원사업부분에서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구축 및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브랜드감귤대학 운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과 농촌진흥청 외 유관기관 강사진을 통한 전문적인 이론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감귤전문 지도사를 매년 양성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4명(제17기)이 수료하여 총 827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품질감귤의 생산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전문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여 46명(제2기)이 수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사무소별 협동조직 및 조합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영농교육을 총 62회 실시하여 1,443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감귤농업인 영농상담 및 과원 현장 방문을 통한 생산지도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농업 경영비 및 가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22년 97명의 조합원 자녀 대학생을 추천받아 9천7백만원의 학자금을 전달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총 11억2천9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13명의 조합원에게 3백9십만원의 출생 축하금을 전달하였고 현재까지 총 126명에게 4천2백4십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육성·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모수원.육묘장 운영을 통해 조합원 및 농업인들에게 우수 묘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97,705本의 우수 묘목을 공급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1,716,224本을 공급하여 농업인들이 감귤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 판매사업

2022년 판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둔화 속에서 노지감귤이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나 하우스감귤 전년대비 28.9% 성장, 만감류 전년대비 9.1% 성장, 기타품목 11.5% 성장하여 총 실적 2,382억원으로서 계획대비 103.3% 달성, 전년대비 148억원 증가하여 6.6%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전국농협 중 농산물 판매사업 실적 1위를 계속하여 달성하고 있다. 또한, 우리농협 공동브랜드인“불로초”는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여 소비자를 통해 선정하는『2023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과수부문에서 13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어 퍼스트클래스를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과수부분 최고의 명품브랜드로서 진가를 다시 한 번 공인받았다. 이는 11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공선회원제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농산물 유통환경과 시장 요구 변화에 대응한 결과 이다.

이용사업 실적은 78억원으로 계획대비 85.7% 달성, 전년대비 4.3% 성장하였다. 제주감귤농협은 2019년부터 정부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 호응의 일환으로 시작한 노인인력개발원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시니어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왔고,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확대 추진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였다.

□ 구매사업

2022년 구매사업은 감귤농가의 실익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인 영농정보 안내 및 시기별 영농교육을 실시한 결과 농약사업은 227억원으로 계획대비 102.4% 달성, 전년대비 8.7% 성장하여 제주감귤농협 설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비료사업은 유기질(퇴비)비료 지원 사업 등 행정사업 농업보조금의 사전확보 및 비료 수급 원활화를 통해 계획대비 117.2% 달성, 전년대비 19.7% 성장하였다. 자재사업은 감귤류상자를 비롯한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토양피복자재 등 우수영농자재의 취급확대를 통해 계획대비 100.4% 달성, 전년대비 814백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7.1% 성장하였다.

하나로마트에서는 2022년 한해 연중 통합전단행사(매월 2회)를 실시하여 전단지 제작, 배포 및 하나로마트 공식 밴드를 운영하여 제주감귤농협 하나로마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매주 목요일‘한우 잡는 날’행사를 실시하여 관내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고, 그 결과 계획 대비 82.1% 달성, 전년대비 2.0% 성장하였다. 관내 마트와의 경쟁 심화, 신규 거래처 발굴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 신용사업

2022년 신용사업은 코로나19와 세계인플레이션 상황 가속화에 따른 긴축,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상호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상황에 대응한‘질적 성장’추진으로 경영내실화 및 수익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상호금융으로의 혁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한해였다. 신용사업 주요 실적으로는 예수금 잔액 7,413억원으로 계획대비 97.5%달성, 전년대비 5.4% 성장하였다. 예수금 평잔은 7,002억원으로 사업계획대비 95.7% 달성, 전년대비 0.6% 성장하였다. 상호금융대출금 잔액은 6,766억원으로 계획대비 95.8% 달성, 전년대비 0.3% 성장하였다. 상호금융대출금 평잔은 6,693억원으로 계획대비 97.8% 달성, 전년대비 4.1% 성장하였다. 어려운 국내의 농업경제상황에서 농업인에게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성 대출금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농어촌진흥기금은 대출잔액 1,337억원으로 도내 농축협 중 점유비 1위를 차지하였고, 조합원의 영농자금 대출 지원이 전년대비 16,523백만원 증가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 및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였다.

보험료는 173억원으로 사업계획대비 89.8% 달성, 전년대비 △3.1% 역조되었다. 농업인의 자연재해 및 농작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감귤 등)에 대해 본인부담료의 20%를 조합에서 지원하였으며, 가입 추진한 3,752건에 대하여

2억2천8백만원의 보험료를 조합부담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었다.

□ 경영관리

2022년 경영관리부문을 보면 우리농협 매출총이익은 452억원으로 계획대비 104.9% 달성, 전년대비 10.1% 성장, 판매비와관리비는 344억원으로 계획대비 89.7% 달성, 전년대비 1.3% 성장, 영업손익은 108억원으로계획대비 225.7% 달성, 전년대비 51.9% 성장하였다. 당기순이익은 54억원으로 계획대비 174.8% 달성, 전년대비 56.1% 성장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 시대로 접어드는 어려운 사업여건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2022년 결산에 있어 충당금 부분인 신용대손충당금, 일반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충당금은 법정 비율 이상 적립하였고, 조합경영기반인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지속경영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협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50%이상(법적적립금 10%, 사업준비금 20%, 차기이월금 20% 이상)을 내부 적립하였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당금의 확실한 적립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앞으로도 제주감귤농협은 도전과 혁신으로 농업·유통·금융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것이며,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수적천석(水適穿石)』이라는 옛말처럼 끊임없이 노력하여 조합원 소득 증대와 실익증진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